

문헌정보학과의 표준교과목에 관하여



클 | 김 용 성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명예교수
 face1942@naver.com

대학의 교육과정에 관한 논의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논의는 인물과 때를 가리지 않고 수행되어야 하고, 대학 스스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야 할 주요 사안이며 영원한 과제이다. 마찬가지로 문헌정보학과의 교과목에 관한 논의를 누가 부정하겠는가. 문헌정보학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초기의 연구결과들은 표준교과목이라는 어휘를 비치지도 않았는데, 언제부터인지 표준교과목에 관한 연구결과는 버젓이 우리 학회지에 발표되었고, 그 대부분은 연구비의 지원을 받고 있다. 대학의 본질, 특징, 사명 등을 고려할 때 참으로 괴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발표된 문헌정보학과의 표준교과목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부적합한 교과목”으로 요약된다.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 논리의 근거는 정부기관이나 사회단체 등 사서직을 채용하는 각급 기관들이 제시한 시험과목에 있다. 이것은 현실이고 당연하다. 그러나 그 시험과목은 사서직에 종사하는 현직자들의 선택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 학계의 의견을 참고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 사서직 채용을 전제한 출제위원과 채점위원은 다름 아닌 대학교수들이다.

사서직 채용고사의 시험과목을 각급 기관들이 공표하면, 사서직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시험과목에 관심을 가지고 매학기 수강과목을 결정하는 데 반드시 참고할 것이고, 그렇게 하여 졸업에 이른다. 사서직 채용고사에 이미 출제된 문제를 종합한 소위 “기출문제집”이나 “예상문제집”의 출판이 학생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학생들만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다. 대학교수들의 노력은 수강지도, 강의준비, 교육과정의 개편 등으로 나타난다. 교육과정의 개편작업은 주기적으로 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이루어진다. 그런 일련의 노력과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학이라면, 누가 그 대학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최근에 발표된 표준교과목을 다룬 한 연구결과는, ‘문헌정보학개론’, ‘정보조직론’, ‘정보서비스론’, ‘도서관경영론’, ‘정보검색론’, ‘사서실습’ 등 6개를 필수과목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핵심과목과 선택과목을 각각 선정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교과목은 이미 교육과정에서 대부분 반영되었다고 단언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그건 오로지 해당 대학의 문제이고, 단적으로 말하면, 해당 교수들의 자질 문제일 뿐이다. 표준교과목을 연구하고, 그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둘 이상의 공동연구로 해결할 심각한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만일, 교육과정의 개편과 그 실행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대학이 있다면, 해당 대학의 학생들이 이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말 것인지 의심스럽다. 우리 분야의 졸업생들이 전공을 살려서 아무런 지장도 없이 사서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지도하고, 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일은 언제나 대학의 몫이며,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우리 학회 역시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각 학회는 학회지를 발행하고, 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속에 편집위원회를 상설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의 심사를 위하여 때를 맞추어 심사위원을 위촉하기 때문이다. 표준교과목의 연구에 관한 한, 학회지의 편집과 심사에 관련된 인사들은 이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와 똑같이 일시적으로 착각에 사로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어찌하여 굳이 표준교과목을 거론하는가. 다른 학문분야의 연구자들도 해당 분야의 표준교과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학회지에 발표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하다.

우수한 사서의 양성, 문헌정보학 전공교수들의 자질, 대학마다 다른 교과목 등을 구실로 삼아 문헌정보학과 의 표준교과목을 연구하는 행태가 더 이상 학회지의 지면을 우습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분야 연구자들의 자생능력과 자정능력이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하면서, 대학의 본질을 망각한 채 문헌정보학의 학격(學格)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이 학과 교수들의 자질을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이 청산되고 근절되기를 소망한다. 